

『건설 기술자들도 Pareto 법칙을 활용하자』

정 필 무

한국건설관리공사 도로본부장

제조업의 품질관리나 안전관리 기법중 Pareto의 법칙을 이용하여 불량품을 제거하거나 안전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원리는 이런 것이다. X축에는 불량요인을 Y축은 각 불량요인의빈도 수를 나타내도록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을 하면 발생 빈도가 높은 상위 20% 요인의 발생빈도 합이 전체 발생빈도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품질의 개선을 위해 상위 20%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으로 이를 품질관리나 안전관리에 적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원래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 (Vilfred Pareto ; 1848 - 1923) 가 19C의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이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9C 당시 영국의 전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인구의 상위 5%가 부의 50%, 10%가 65%를 , 20%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보화 시대에서는 상위 5%가 전체 부의 90%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지만) 사실 이 이론은 그 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미국의 조셉 M 주란 (Joseph. Moses Juran ; 1904 -) 이라는 엔지

니어가 품질연구에 Pareto의 법칙을 적용하여 1960년대 일본의 일등품질에 큰 기여를 하였고 그 후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최근 이에 관한 책이 21세기 북스에서 나왔다. 저자는 리처드 코치(Richard Koch)로 미국에서 경영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책 제목은 80/20 법칙 : 현명한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The 80/20 Principle : The Secret of Achieving more with less) 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 법칙이 우리의 생활, 기업 그리고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80/20의 원리는 “인간의 직관”에 반하는 법칙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이 법칙에 적합한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아도 그렇다. 많은 친구 중 자주 연락하고 친한 사람은 아마도 20% 안 짝일 것이다. 우리의 의상도 그러할 것이다. 많은 옷 중 즐겨 입는 것은 아마도 열 벌이 있다면 2-3벌 특히 남자의 경우 넥타이는 무척 많이 있어도 즐겨 매는 것은 4-5 개정도 일 것이다. 우리의 생활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곳에서 80/20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항상 이 80/20의 법칙을 생활에 적용하고 80/20의 사고를 지니길 권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80%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20%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하고 그리고 그 20%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과 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해내야 한다. 이것이 80/20 사고방식의 목적이다.

그는 처음에 중요한 20%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때 우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중요치 않은 80%에 속하는 일들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일과 시간 중 80%에 해당하는 시간을 업무와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것부터 줄여나간다면 업무효율은 증대될 것이며 중요한 20%가 보일 것이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중요한 20%를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나머지 80%의 것보다 좀 더 많은 집중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연코 이 중요한 20%를 찾아 실행하여야만 한다.

80/20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큰 교훈은 노력과 보상은 비례치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노력을 중요치 않은 80%에 해 보았자 중요한 20%에 적은 노력을 한 것과는 결과는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20%에 집중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여러 분야에 박식하여야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분야에서 탁월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한 중요치 않은 80%에 해당하는 것은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본인이 가장 잘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중요한 20%로 만들어 그 곳에 집중하라고 권하고 있다.

무엇이 내가 가장 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 “행복의 집단”과 “불행의 집단”을 작성해 보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느꼈던 시간의 집단을 생각이 나는 대로 많이 적고 그 공통점을 끌어내는 것이다. 불행의 집단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성취의 집단”과 “무 성취의 집단”을 작성하는 것이다. 1주일, 한달 또는 1년, 평생동안 투자한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성취한 기간과 일을 적어 그 공통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무 성취집단은 그 성과가 미비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간의 것을 기록한다. 이 것은 본인만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그리고 솔직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면 진정 자기가 어느 일에 능력이 있고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진정 자기가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고 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행복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야 하고, 행복해지려고

모두 노력해야 한다.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라는 역설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행복은 매우 실존적 이여서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결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우연” 때문에 초조해지거나 화내거나 또는 씩씩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 아껴둔 행복이 내일의 행복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행복은 근육과 두뇌 같아서 쓰지 않으면 위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비선형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선형적 사고는 단순 명쾌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세계를 바꾸기 위한 준비도 훨씬 미약하다.

그는 또한 시간관리에도 몇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80/20의 법칙에 따르면 행동을 좀더 줄이고 무엇이 중요한 20%인지 생각하는데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동은 종종 생각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20%에 사용하는 시간을 늘여나가는 것이 바른 시간관리이다.

현대는 정보지식의 시대이다.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는 소득의 공평한 분배가 가능했다. 쉽게 말해서 100의 능력의 소유자가 100의 보상을 받으면 90의 능력은 90을 50의 능력자는 50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화, 지식화 시대는 다르다. 승리자(Winner)가 모든 것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을 예측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20여년 전에 스웨덴의 팝그룹 ABBA의 Winner Takes it all

이라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보라. 그가 얻은 부는 2등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디지털을 이끌어 가는 빌게이츠, 야후의 창시자 제리 양 등, 1등과 2등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다.

끝으로 우리 건설 인들은 지난 60~70년대에 건설산업이 우리 나라 국력신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상기해 보면서 최근 벤처산업의 급성장으로 과거의 굴뚝산업이 퇴보되는 느낌이 들지만 다시 한 번 재무장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특히, 우리 모두가 장인정신으로 건설부문에 서 1인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80/20 법칙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건설산업은 다시 밝아 올 것이다.